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0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9일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한동훈 "민심 어기는 정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대표 당선…1차 투표에서 62.8%로 결선 없이 확정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청년최고에 진종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고,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32만702표)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어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당선됐다. 5위였던 김민전 후보는 여성 단독 후보로 특별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에 포함됐다.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이 가운데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친한계 인사 2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한 후보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당원이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앞장서서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민심에 더 잘 반응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자성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 과열경쟁을 의식한 듯,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20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고, 21~22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선거인단 84만1614명 가운데 40만8272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 48.51%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55.10%)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면서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과밀학급·원거리 배정 해소되나 ▶6면
파리 올림픽 - 남북 탁구 선의의 경쟁 ▶18면
늦깎이 '소리꾼' 장사익 노래 인생 30년 ▶22면

장사익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으로 통합 서둘러야"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회담 앞 지역경제단체들 한목소리로 촉구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키워야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의 3자 회담을 앞두고 지역 각계에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군공항 이전 부지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전략산업을 서둘러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을 민간·군 통합 공항 최적지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군 공항 이전 반대만을 고집하는 무안군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19개 광주경제단체는 23일 광주상의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촉구를 위한 지역 경제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 군 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제단체들이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동발표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김현화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경제계는 무한경쟁시대 생존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을 간절히 염원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지자체간 갈등,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고도, 6년간 93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항공 이용 지역민 중 94%가 인천 등 타 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성장 동력인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부산가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광주공항과의 신속한 통합 이전이 요구된다"면서 "무안국제공항 통합 시엔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항공물류 허브 육성, 배후도시 육성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 무안 역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또 "광주도 공항이 떠난 부지에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도 3자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바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곧 열릴 3자 회담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 결단이 시도민과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립 현장을 둘러봤다는 강 시장은 "TK 신공항 추진 과정을 들으면서 크게 부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전 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항 건설로 지역의 관문을 여는 것을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과 그 일을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또 "무안 통합공항도 올해 안에만 확정되면 TK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면서 "우리는 이미 공항을 잇는 무안~광주 고속도로를 갖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역시 2조 7000억원을 들여 공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여러 강점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3자 회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 지역 특례문제를 포함해 해당 주민에게 어필할 군 공항 특별법 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군 공항이 오는 데 따른 불편함을 10~20배 상쇄할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무안군에도 "무조건 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세 단체장은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이달 내에 첫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으며,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만남이 유력시 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